

페루면

우리가 페루하면 떠오르는 것은 15세기 잉카제국의 유물인 마추픽추(Machu Picchu)를 생각하게 되지만, 섬유와 인연을 맺고 있는 우리는 페루면을 무시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페루 북부 해안가에 있는 치카마(Chicama)계곡의 유적에서 B.C. 3000년경의 면제품이 출토된 것에서 이미 오래 전에 면화가 재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페루 북부에서 시작된 것이 장섬유면인 바르바덴세(*Gossypium barbadense*)라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 면화의 종류가 세계로 퍼져나가서 현재의 해도면이나 이집트면, 수단면 등으로 발전하였기에 페루면을 빼 놓을 수 없는 것이다.

페루는 남북으로 2000km나 되는 길게 뻗은 태평양 연안의 나라로서, 국토는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한 한반도 크기의 6배나 되는데, 사람의 등줄기처럼 안데스 산맥이 중앙을 종단하고 있으며, 태평양 쪽은 사막지대로 되어 있어 경작 가능한 면적은 2.2% 밖에 되지 않는 산악국가다.

안데스 산맥은 높이가 5 천m나 되기 때문에 해안지대, 산악지대, 밀림지대, 비 많이 오는 지대 등으로 나뉘며 각기 다른 기후조건이다. 이 중에서 면화재배가 가능한 지역은 서부의 태평양 연안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대는 일 년 중 강우량이 적고 일조시간이 길며 안데스산맥에서 흐르는 물을 이용할 수가 있어 면화 재배엔 천혜의 좋은 조건이다. 이 조건이 바르바덴세의 기원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견해도 있다.

페루에서 재배되는 면화의 품종은 4 가지인데 품종 별로 지역을 나누고 있다. 남북으로 2000 km나 길기 때문에 지역마다 재배시기가 달라서 어느 곳에선 씨를 뿌리는가 하면 어느 곳에선 수확을 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페루의 대표적인 피마종과 탱기스종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피마(pima)종

현재의 피마종의 뿌리는 바르바텐세의 원종이 그냥 페루에서 개량된 것이 아니라 일단 이집트나 미국으로 건너가서 개량된 것이 다시 페루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집트면이나 수단면, 미국 수피마와 같은 초장섬유면이며, 섬유의 길이는 1 인치 반 이상으로 이집트면보다도 길다. 다만 강력이 떨어지는 것이 약점이다.

○ 탱기스(tanguis)종

페루면 중에서 70%를 차지하는 탱기스종의 특징은 페루 토착종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년생인 나무에서 채집하는 면화다. 현재 세계에서 생산되는 면화는 거의 전부가 일년초로 재배하는 것인데, 이 탱기스종은 나무에서 따내는 면화다. 나무가 나이가 들수록 커지기 때문에 현재의 재배방법은 일년치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나무 뿌리부분만 남기고 모두 잘라버리면 이듬해에 남아 있는 줄기부분에서 새로운 가지가 생겨나서 다시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섬도가 5.5~6.0으로 세계 면화 중에서도 가장 굵으며 별키성이 좋다는 것이다. ♣(공석봉)

